

1. 출국 전 준비

(1) 학교 선택

포스텍에서 섬머 세션 프로그램 학생들을 모집할 때 학교 선택에 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버클리 와 웨스트민스터 두 개의 대학교를 고민하였는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섬머세션 프로그램 이후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섬머세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유럽 여행을하기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섬머 세션 프로그램과 함께 유럽에 다녀 온다면 조금 더 오랜 기간 유럽에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로 6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는 3주짜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면 웨스트민스터, 외국의 다른 문화에서 진정한 공부를 해 보고 싶다면 버클리 대학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미국으로 섬머세션을 간다 하여도 미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2) 비행기 표 및 비자

섬머세션 프로그램 발표가 4월 초쯤 났었고, 그 직후 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였습니다. 일본항공과 영국항공의 합작품 항공을 이용하였는데, 비용은 약 120만원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비행기표를싼 걸로 찾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하였고, 중간에 기존에 예매했던 표를 취소하는 일이 생겨 취소 수수료를 물기도 하였지만, 비행기 표를 살 때 추천드리는 것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경유를 덜 하는 비행기가 좋습니다. 정말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돈을 조금 더 내고 경유를 조금 하는 비행기를 타시고(직항이면 아주 좋습니다) 시간을 아껴 여행을 더 하시던지 하길 바랍니다. 저는 영국으로 갈 때 일본 하네다에서 12시간 정도 경유 대기를 하였는데, 공항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방사능으로 흉흉한 분위기 이다 보니까 공항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공항 노숙 밤에 정말 춥고 쓸쓸하고 지루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 올때는 경유를 무려 2차례 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아웃하여 영국으로 가서 13시간 대기하고 영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9시간 정도 대기한 다음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도착하여 서울 가는 지하철에 타서 맞은편 유리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니 왠 거지 한명이 캐리어 들고 피난가는 줄 알았습니다. 경유는 정말 할게 못됩니다. 최대한 직항 항공권을 추천드립니다. 여행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중국항공이 이름과는 다르게 평이 좋았습니다.

비자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게 될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여행 비자를 받으면 안되고, Student Visitor Visa 줄여서 SVV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자는 따로 걱정할 필요 없이 런던에 입국 할 때 심사관에게 받게 됩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입국심사가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것은 숙소의 명확한 주소, 은행에서 뺄 수 있는 잔고증명서, 스쿨레터 그리고 여권입니다. 심사관에게 가서 가볍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하신 후 SVV 비자를 주세요 하면 여러 가지로 물어 봅니다. 그럼 위의 서류들을 들이 미시면 여권에 비자를 찍어 줍니다. 물론 심사관에 따라 저 위의 서류를 모두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간 친구는 모르고 스쿨레터를 캐리어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뻔 했지만 신속한 임기응변과 소통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입국심사는 심사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해결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2. 교과목 선택 및 학교수업

저는 Photographing the city : London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DSLR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이론 등을 수업하고, 야외 수업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3주 동안 프로젝트가 3개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프로젝트를 위해 찍은 사진들을 ppt에 띄워 놓고 한명 한명씩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에는 총 18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 13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사진 이론과 사진 촬영에 대한 기술보다는 영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저를 포함해서 총 2명 있었는데, 섬머 세션 프로그램을 온 저희 학교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 봐도 한국 학생들이 영어 소통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수업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며 서로 문화 공유도 하는 등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감명깊었습니다. ■

○ 그리고 저는 소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펍에 가거나, 근교로 여행을 갔습니다. 특히 옥스퍼드나 옥에 갔을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런던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가이드들이 함께하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준 덕분에 영국 여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숙소■

○ 저는 숙소를 한인민박으로 잡았습니다. 기숙사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였습니다. 기숙사는 비록 1인실을 사용하고, 주방이 있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저같은 가난한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너무 비쌌습니다. 한인 민박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량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Euston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한인민박을 8인실을 이용하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밤마다 주방에서 벌어지는 파티와 함께 많은 한국인들의 여행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여행 가서까지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인 민박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 시간대를 제외하면 민박에서 거의 잠만 잤기 때문에 따져보면 한인 민박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산다고 하여도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건 아니니 돈을 아껴야 하는 경우라면 한인 민박을 몹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인 민박으로 잡기 좋은 위치는, 하이드 파크 근처~ 리젠트 파크 동남쪽 입니다. 지도로 검색 해 보시면 런던 중앙입니다. 여기가 많은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좋고 치안도 좋은 편이라 추천합니다.■

4. 생활■

○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는 완전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과제가 있었지만 저녁에 한두시간 정도 매일 투자하면 되는 정도라 학교를 마친 이후에는 런던 여행을 다녔습니다. 계획 없이 이리저리 다녀 보기도 하고, 하루 전에 다음날엔 어디로 가 볼지를 정하는 등 즉흥적으로 다니니 약 3주 후에는 런던의 거의 모든 곳을 다녀 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걷는 것을 좋아하여 3주동안 지하철로 사용한 요금은 아마 20 파운드도 안 될거예요. 주말에는 못가본 근교 여행도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세븐 시스터즈, 리즈성, 윈저성 등에 다녀 왔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 한번쯤은 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섬머세션 이수 후 여행■

○ 저는 섬머세션 기간을 포함하여 약 4주간 영국에 머물렀고, 이후 3주간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파리, 니스, 스위스,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에 3주동안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 때에는 전부 호스텔에 머물렀습니다. 파리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도시인 듯 합니다. 자신이 로맨틱한것을 좋아하고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파리는 정말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런던에 약 4주간 머물다가 파리에 가니까 도시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더라구요. 니스는 세인들이 휴가를 위해 몰려 오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니스에서 약 4일간 머물며 휴양하였는데, 몽돌해변과 그곳에서 선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여유를 얻은듯 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 알만 하더라구요. 스위스에서는 그린델발트에서 2박 3일간 머물렀습니다. 인터라켄에서 기차를 타고 30분간 이동하여 도착하는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융프라우에 올라가기 위해 거쳐 가는 마을이지요. 유럽에 머문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엄청난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멍하더라구요. 스위스는 정말 날씨가 중요한 듯 합니다.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에는 총 3일 중 하루가 맑았고, 하루는 비가 왔으며 나머지 하루는 흐림이었습니다. 스위스는 무조건 맑아야 합니다. 늙어서 스위스에 살고 싶네요.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인상깊지는 않았습니. 특히 로마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최악이라 생각하는 도시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엄을 느낄 수는 있지만, 문화유적도 그냥 평이하고 도시도 더러우며 아무튼 여행 막바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서의 5일은 다소 지루하였습니다.■

6. 비용■

○ 비행기 표 130만원, 숙소(런던 100만원, 다른 도시는 기억 안남. 보통 한박에 25~30유로 정도). 등록금 약 230만원. 이후 관광비 및 교통비 등 해서 약 670만원 정도 쓴 듯 합니다. 약 7주

가량 있었던거 치고는 조금 쓴 듯 한데, 제가 시내 교통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많이 걷고, 점심을 대부분 샌드위치나 빵류로 먹은 것이 돈을 아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듯 합니다.